

CES2021, 첫 온라인 개최

삼성·LG 첨단경쟁 후끈... 314개 韓기업 어떤 기술 선보이나

삼성 디지털콕핏 2021년형 공개
마이크로 LED TV·비스포크 소개
LG 세계최초 롤러블폰 공개 유력
가상인간 '김래아' 프레젠테이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도 첨단 기술 박람회를 막지 못했다.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1이 올해에도 예정대로 개최된다. 자리를 온라인으로 옮기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참가해 미래 시대를 앞당길 전망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CES2021은 11일(미국 현지시간)부터 14일까지 개최된다.

올해 행사는 사상 처음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을 염려한 주최자 소비자기술협회(CTA)가 일찌감치 결정했다.

행사 규모도 대폭 줄었다. 참여기업이 지난해에는 4400여개였지만, 올해에는 1964개로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중국 업체들이 대거 참가를 포기한 영향이다. 지난해 1000여개 업체가 태평양을 건너왔지만, 올해에는 203개 업체만이 온라인 부스를 차렸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양국간 감정이 악화한 영향으로 알려졌다.

현대자동차그룹과 도요타 등 여러 자동차 업체들도 참여를 포기했다. SK그룹도 올해에는 따로 전시관을 마



삼성전자 디지털콕핏 2021년형.

/삼성전자



LG전자 CES2021 전시관.

/LG전자

련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글로벌 최고 기술력을 가진 업체들은 온라인을 통해 더 다채로운 부스를 마련하며 '포스트 코로나'를 전망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국내 기업들이 주목받는 모습이다. 참가 기업이 314개로 미국(570개)에 이은 2번째. 삼성전자와 LG전자, SK그룹 등 주요 업체들이 신기술을 가득 담아 온라인에 펼쳐냈다.

삼성전자는 11일 프레스 컨퍼런스를 열고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한다. 다음날에는 디지털 쇼케이스를, 14일에는 별도로 갤럭시 언팩 행사를 열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앞서 마이크로 LED TV와 네오 QLED TV 등 신제품 TV를

소개한 바 있다. CES2021에서도 이들 제품과 북미 출시를 앞둔 비스포크 냉장고 등을 새로 소개할 예정이다. 하만과 함께 만든 디지털콕핏 2021년형과 초광대역통신을 이용한 IoT 제품, 로봇 등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LG전자는 11일 프레스 컨퍼런스를 예고한 상태다. 'LG와 함께 홈 라이프를 편안하게 누리세요(Life is ON - Make yourself @ Home)'를 주제로 가상 전시관을 열며, 다음달 15일까지 5주간 공개한다. ▲인터넷 방송관(Life is ON TV) ▲가상전시관(Virtual Experience) ▲LG 시그니처 브랜드관(LG SIGNATURE in Vegas) ▲MZ 특별관(Life's Good Studio) 등 4개로 세분화했다.

주요 전시 제품은 최근 공개한 LG

QNED TV를 비롯해 시그니처 올레드 R, 올레드 이보를 비롯해 LG인스타뷰와 오브제 컬렉션 등이다. 세계 최초 출시할 롤러블폰도 이번에 공개될 것이 유력하다. 상반기 미국에 출시할 LG클로이 살균봇을 비롯한 로봇 솔루션도 함께 자리한다. LG디스플레이도 따로 체험존 11곳을 통해 OLED 패널의 다양한 활용성을 소개한다.

특히 LG전자는 가상 인간인 '김래아'에 프레스 컨퍼런스 프레젠테이션을 맡기며 인공지능 개발 성과를 뽐낼 예정이다. 김래아는 완전히 새로 만들어진 캐릭터로, 인공지능 기술 기반으로 목소리와 움직임, 특징을 구현해냈다.

아울러 LG전자는 최근 합작 법인을 설립키로 한 마그나와 부스에서 전기차 전장 솔루션도 소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는 GS칼텍스와 만도가 CES2021에 자리를 잡았다. 각각 미래형 에너지 솔루션과 새로운 운전 시스템을 공개하며 미래 모빌리티 시대 인프라를 확인해준다. 삼성전자 C랩과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등도 CES2021을 통해 글로벌 관람객들과 바이어들을 만나게 된다.

한편 이번 CES2021에는 인텔과 AMD 등 반도체 업체들도 차세대 제품을 공개하며 '슈퍼 사이클' 경쟁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인공지능(AI)을 도입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MBUX 하이퍼스크린'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기술 개발에서도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GM도 새로운 로고와 함께 전기차 개발 계획을 발표한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SK이노, 참가 대신 참관... 파이낸셜 스토리 기반 ESG 전략 마련

김준 사장 등 350명 참관단 구성
E-모빌리티 트렌드 확인·협력 모색

SK이노베이션이 파이낸셜 스토리 기반 성장원년인 2021년 강력한 실행을 위해 미국 현지시간 11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CES 2021'에 350여 명의 참관단을 만들어 참여한다.

SK이노베이션은 10일 'CES 2021'

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55년만에 처음 온라인으로 진행됨에 따라 직접적으로 참가하지 않는 대신 대규모 참관을 기획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참관단에는 김준 총괄 사장, 지동섭 배터리 사업 대표, 노재석 SKIET 대표, 환경과학기술원 및 전사 각 사업 회사의 전략담당 임원을 비롯한 경영진과 구성원 등이 대거 포함됐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CES에서 회

사가 목표한 파이낸셜 스토리 기반의 ESG 성장을 위해 강력하게 추진하는 그린벨런스 전략을 완성하기 위해 E-모빌리티(를 비롯한 주요 산업의 글로벌 트렌드를 직접 현장에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회사가 추진하는 방향의 트렌드와 기술을 가진 기업들과는 협력 방안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CES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

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환경에 더해 빠르게 변화하는 인공지능, 가상현실, 자율주행 등 혁신 기술과 제품들이 대거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SK이노베이션은 에너지·화학 업계, 전기차 배터리 업계 통틀어 최초로 2019년 CES부터 참여해왔다. 지난해에는 SK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 SK아이이테크놀로지 등 자회사들과 함께 미래 E-모빌리티 혁신에 필요한

최첨단 배터리와 초경량·친환경 소재 및 각종 운할용 제품 등을 패키지로 묶은 'SK Inside'를 선보여 크게 주목받은 바 있다.

SK이노베이션 김준 총괄 사장은 "ESG 성장을 중심으로 수립된 파이낸셜 스토리를 완성할 수 있는 기술과 트렌드를 직접 찾아 파이낸셜 스토리의 실행력을 키워갈 기회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삼성전자, 친환경 TV전략 본격화

올해 온실가스 2만5000t 감축 전망

삼성전자가 친환경 TV 전략을 본격화한다.

삼성전자는 지난 6일 '삼성 퍼스트룩 2021'에서 ▲에코 패키지 적용 제품 확대 ▲태양전지를 적용한 친환경 리모컨 도입 ▲재생 플라스틱 사용 등을 통한 탄소배출량 저감 계획 등을 소개한 바 있다.

에코 패키지는 포장재에 업사이클링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포장재로 고양이 집이나 소형 가구 등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점 패턴과 QR코드를 통한 제작 설명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일부 모델에서 올해에는 전 모델에 적용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이를 통해 1만t(톤) 이상 온실가스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친환경 리모컨은 태양전지를 사용해 일회용 배터리를 쓰지 않아도 되는 제품이다. 크리스탈 UHD TV 일부 모델에는 80% 이상 소비 전력을 절감할 절전형 리모컨을 제공한다. 이는 7년간 9900만개 일회용 배터리 사용을 줄이고, 약 1만4000톤 온실가스 절감도 가능하다는 게 삼성전자 생각이다.

재생 플라스틱 사용도 확대한다. 모니터와 사이니지 스탠드, 뒷면 커버에서 적용 부분을 더욱 늘린다는 방침이



삼성전자 에코패키지와 솔라셀 리모컨.

/삼성전자

다. 이미 이를 통해 500톤 이상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거뒀다.

삼성전자는 올해 영상 디스플레이 제품 중 친환경 아이템을 적용한 제품으로 온실가스를 약 2만5000톤 감축할 것으로 내다봤다. 30년생 소나무 380만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온실가스 규모와 맞먹는 수치다.

/김재용 기자

LG전자, 2021년형 TV 라인업 공개

올레드·QNED·나노셀 제품 확대

LG전자 TV 라인업이 훨씬 풍성해졌다.

LG전자가 10일 공개한 2021년형 TV 라인업은 '삼각 편대'를 앞세워 글로벌 프리미엄 TV 시장 공략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업그레이드한 자발광 올레드 TV에 이어 LG QNED 미니 LED와 LG 나노셀 TV가 뒤를 따른다.

LG QNED TV는 미니 LED에 퀀텀닷 기술인 '퀀텀 나노셀 컬러 테크놀로지'를 적용한 제품으로, 올해 10여개 모델도 글로벌 시장에 출시할 예정이다.

LCD TV로는 가장 진화한 기술로 알려졌었다.

올레드 TV도 업그레이드 한다. 차세대 올레드 패널을 탑재한 '올레드 예보'를 통해서다. 블랙 표현력을 높이고 시야각을 넓혀 더 완벽한 올레드 TV로 만들어졌다. 글로벌 시험 기관 인터텍에서 색충실도 100%를 충족한 OLED 패널을 사용했다.

올레드 TV 라인업도 더 다양해진다. 지난해 세계 최초 48형 올레드 TV 출시에 이어 올해 83형 올레드 TV도 새로 출시한다. 70인치 이상 초대형 제품 모델도 지난해 4개에서 올해 7개로 대폭 늘렸다.

/김재용 기자